

한명기, “ ‘ 재조지은’ 과 조선후기 정치사 -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 제59집, 2007. pp.191-230.

I. 머리말

-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韓中日의 인식의 차이가 큼
- 임진왜란당시 명의 참전에 대해 현재 중국내에서 ‘抗倭援朝’로 부름
  - 저자는 ‘再造之恩’(명이 임진왜란당시 망해가는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 ‘東援’이란 용어에 주목 : 조선에 대해 施惠者로 자부하여 보상을 바라는 뉘앙스 풍김.
  - \* 1593년 11월, 명 神宗이 조선에 보내는 宣諭帖에 ‘재조지은’ 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함.
  - 1610년(광해군 2년) 명의 遼東都司가 조선에 보낸 咨文에서 임진왜란을 ‘東援一役’이라 부름.
  - 조선이 1953년 1월 명의 평양탈환을 ‘再造邦國’이라 지칭한 이후 명에 보내는 문서와 개인 문집에서 ‘再造之恩(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이라는 용어 사용함. 이후 재조지은은 권력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에 의해 필요에 따라 환기되거나 재해석됨.

II. 임진왜란 직후 공신 책봉과 ‘再造之恩’ (선조)

1. 명군역할 절대론과 扈聖功臣 우대론

- 선조: 임란당시 권위가 실추되어서, 전쟁 극복의 공로를 모두 명군에게 돌림
- 선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명군의 참전과 원조’로 바라봄. 반면 일본군과 직접 싸웠던 조선 군인들의 전공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식하며, 의병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음. 평안도 지역 백성들의 노고만 치하함.
  - 이항복, 정곤수 등을 비롯하여 내시, 마부 등 신분에 관계없이 의주까지 파천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신료들을 ‘扈聖功臣’으로 敍勳함.
  - \* 전쟁후 110명의 공신 선정과정에서 선조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됨. ‘선무공신’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여 공을 세운 사람들임. 선조의 입장에서 왜란 당시 왕권유지나 국왕 생존에 큰 위협이 된 요소들은 ‘파천’, ‘일본군’, ‘민간의 반란’ 이었음.

2. 선조의 왕권강화와 ‘재조지은’

- 선조는 전쟁발발후 파천, 패전을 거치면서 왕권 상실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됨. 왜란중 자신의 행적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시도함
  - 이순신 등 일선지휘관이나 의병장들의 공로 자체를 왜소화함.
  - 왕세자 광해군도 공신으로 녹훈해야 한다는 건의를 거부하고, 왕권 위협 요소로 인식함.
  - 자신이 의주까지 피난했던 것을 ‘명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함.
  - ‘왜란 극복의 원동력’인 명군을 불러오는데 성공한 ‘구국의 군주’로 이미지 전환함.
  - 명 황제가 베풀었다는 ‘재조지은’이 결국 ‘선조의 공로’로 전환됨.

### III. 명칭교체와 ‘再造之恩’

#### 1. 光海君의 왕권과 ‘再造之恩’

- 광해군: 정통성에 하자가 있어 ‘재조지은’에 대한 재해석 시도
  - 광해군 즉위후 1610(광해군2년).7.15 유대조의 상소: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광해군의 공로가 선조보다 크다고 강조함.
    - 왜란당시 자신의 分朝활동(의병들을 독려하고 군량과 무기를 준비함)이 있었기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으며, 조선에 출병한 명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 왜란을 극복한 공로를 내세워 신료들로부터 존호를 받음.
  - 광해군: 임란시기 의병들의 활약상을 부각시킴. 임란 극복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조(호성공신)와 광해군(선무공신중심)간의 차이 보임.
  - 광해군 정권의 핵심인 鄭仁弘(임란당시 경상우도지역의 의병장), 이이첨 등은 주전파.
    - 광해군 정권의 구성원은 임란당시 의병으로서 주전파적 성격이 강하고 ‘宣武功臣’에 근접함.
  - 명 신종: 1609년 광해군에게 내린 책봉교서에서 선조때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명이 조선을 再造해 주었음을 강조함. 이후 명은 조선에 그 보답을 요구함
    - 재조지은: 17세기초 명칭교체기에 조선으로부터 軍援을 이끌어내며, 명이 조선을 끌어들이려 후금과의 싸움에 밀어넣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됨
  - 광해군: 1619년 사르후 전역에 원병 보내 참전했으나 후금군에 참패함. 이때 ‘재조지은’이 조선군의 참전 이유 및 후금에 대한 조선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명분으로 이용됨.
    - 이후 광해군은 명의 거둬들인 군원 제공 요구를 거부함.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됨.

#### 2. 仁祖政權과 ‘再造之恩’

- 인조반정: ‘광해군의 재조지은 배신’을 응징하는 것을 명분으로 서인들이 집권함.
  -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선무공신계 대북파 주도세력을 제거하고 호성공신계 인물들이 집권함.
    -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명을 도와 후금을 징벌해야 한다는 것이 당위가 됨.
  - 자신을 책봉해준 명에 대한 반대급부: 毛文龍에 대한 원조, 명 난민들의 포용→후금과 갈등
    - 이러한 재조지은에 대한 보답은 후금에 대한 군사적 행동 등 실천적 차원이 아닌 관념적 차원에 머무름: 1630년 후금군이 명의 황도 포위 소식에 조선의 신료들이 인조에게 正殿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조선은 정묘호란전까지 후금에 대해 조선이 親明的 정책을 취하는 명분으로 재조지은을 내세움. 청도 이를 용인하여 1619년 사르후 전역당시 조선군의 참전을 양해함.
    - 정묘호란부터 청은 ‘재조지은 때문에 명을 배신할 수 없다’는 조선의 명분을 부정함. 청은 정묘호란의 명분중 하나로 위의 조선군의 사르후 전역 참전을 제시함.
  - 선조말년 海西女眞의 올라(烏拉) 부족이 조선 변방 공격시, 누르하치가 올라의 國主 부잔타이(布占泰)를 움직여 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지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상기시킴. 이후 청은 조선이 명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자신들이 조선에 베푼 은혜에는 왜 보답하려 하지 않느냐고 역공함.

#### IV. 丙子胡亂이후의 ‘再造之恩’

##### 1. 北伐시도와 ‘再造之恩’

###### □ 인조

- 병자호란시 청군이 남한산성 포위하고 명과의 관계를 끊고 항복을 종용함.
  - 조선은 청군 진영에 보낸 답서에서 ‘재조지은’을 거론하면서 명을 배신할 수 없음을 강조함
  - 1637년 1월 조선의 항복이 임박하여 청이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천하의 많은 나라중 명은 하나의 국가일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명이 곧 천하’라는 조선의 세계관에 제동을 걸음.
  - 결국 조선은 항복 직전에 청에 보낸 국서에서 인조의 왕권을 유지시켜준 청 황제의 은혜를 ‘再造之賜’라고 표현함.
- 병자호란에서 항복이후 인조는 청의 강요에 의해 征明을 위한 원정에 병력 파견함.

###### □ 효종

- 효종대부터 숙종초까지 조선에서 청에 대한 復讐雪恥를 위한 북벌론이 대두됨
  - ① 병자호란당시의 치욕을 씻겠다는 복수심, ②이미 망해버린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③ 조선이 유일한 중화문명의 계승자로 자부하는 의식과 맞물림.
- 효종대 북벌도모 명분으로 ‘재조지은’이 언급되지 않음
  - 효종이 항복의 치욕과 오랜 瀋陽 인질생활의 고통을 안겨준 청에 대한 복수심이 우선임
  - 현실에서 청의 엄격한 감시와 빈발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북벌 실행이 불가능해짐

###### □ 중국내정세의 변화: 북벌의 기회 가능성

- 1640년대중반~1670년대, 청은 동남 연해지방에서 鄭芝龍, 鄭成功, 吳三桂 등 반청세력의 도전에 직면함. 정씨 일족은 일본의 군사원조를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1661년 대만까지 정복함. 1664년 오삼계가 崇禎帝의 셋째아들을 황제로 추대 및 북경으로 진격 선언

##### 2. 肅宗代 大報壇의 건립과 ‘再造之恩’

###### □ 숙종 : 재조지은 숭앙 관련 논의가 왕권 강화 시도와 맞물림

- 숙종대 초반 ‘재조지은’이 북벌론을 뒷받침하는 명분적 기반이 됨.
  - 위 三藩의 亂을 계기로 조선에서 尹鑣 등이 재조지은을 명분으로 청에 대한 공격을 주장함.
  - 숙종의 태도: 윤희의 제안 자체에는 동조했으나, 시세의 부적합을 들어 실행에 반대.
  - 삼번의 난으로 위기에 처한 청이 조선에 조총 제공을 요구하자, 숙종은 이를 수용함.
- 송시열은 1681(숙종 7년)년 1월 숙종에 올린 글에서 효종의 聖敎를 받았음을 언급함
  -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 시도가 군사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려했던 것이 아니라, 내수왜양을 위한 관념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윤희, 허적 등의 숙종 초반 실천적 차원의 북벌 시도를 비판함.
- 宋時烈과 老論 : 관념적 북벌론자로서 ① 명 神宗이 재조지은을 베풀었던 것, ② 선조가 보답을 위해 사대했던 것, ③ 인조가 호란 겪으면서도 재조지은을 잊지 않았다는 것 등을 국가 존속과 대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함 ⇒ 尹鑣 등의 북벌 시도 비판, 숙종이 발의한 大報壇 건립에 적극 참여

- 송시열은 자신과 노론이 '선조→인조→효종→숙종'으로 이어진 국왕들의 재조지는 송양 노력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통세력으로 인식시켜려고 함.
- 1681년 오삼계 등의 반란 종식, 1683년 대만내 정씨 세력의 청 투항: 청은 중원의 확고한 기반 마련함. 1684년 이후 청이 해금령과 遷界令을 해제함.
- 1680년대 이후 청의 대조선 정책이 좀더 유화적으로 바뀌고, 1697년(숙종 23년) 조선의 기근이 심각할 때 조선에 미곡 무역을 허락해줌.
- 조선에서 윤희일파의 실각 이후 북벌론이 관념화됨
  - 조선의 힘만으로 북벌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청 오랑캐의 운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감.
  - 1699년(숙종 25) 박근의 상소: 임란때 명이 조선을 원조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논리 주장. 결국 조선은 명이 희생하여 살려낸 나라가 되며, 조선=명, 조선=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로 발전.
  - 조선이 夷狄인 청 황제의 책봉을 정통성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음.
  - 조선 스스로 명 황제에 대한 제사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관념적으로나마 진정한 정통성의 원천을 희구함. 그 과정에서 재조지은의 존재는 명 황제를 祭享하는 중요한 명분이 됨.
- 1704년(숙종 30) 1월 10일 명이 망한지 60주년 기념해서 숙종은 신종의 사당 건립을 제안함.
  - 대보단 건립 논의가 시작되고, 송시열 계열의 노론 신료들이 적극 찬동함.
  - 1704년 12월 대보단이 완공된 이후 10년정도 청은 이를 문제삼지 않음.
  - 숙종은 명 황제에 대한 제향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 지님.
- '재조지은에 대한 보답'을 내세워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기 위한 대보단 건설과 崇明儀式이 가능했던 배경: 당시 청의 압력이 줄어든 상황과 관련됨.
  - 18세기초 청은 중원을 확고히 장악하면서 당시 조선에 대한 청의 압력이 크게 줄어들음.
  - 청의 강희제가 '명에 대한 조선의 충절'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이를 청에 대한 배척이 아닌 '청에 대한 충절'로 환치시켜 생각할 정도로 청이 자신감을 가짐
  - 송명익식의 反清的 의미가 북벌론과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짐.

### 3. 英祖代 大報壇 重修와 '再造之恩'

- 영조 : 재조지은에 대한 강조와 이와 연결된 대명의리론에 대한 선양이 계속됨
  - 숙종과 영조: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에 격렬한 정쟁속에서 명 神宗을 모시는 대보단 건립과 명 毅宗, 洪武帝 등의 합사를 주도하여 왕권 위상 강화 시도. 崇明과 對明義理論을 내세워 국왕 주도의 입장을 의도함.
  - 영조: 명의 멸망 원인에 대해 경연 석상에서 신료들과 토론함.
    - 재조지은의 송양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천명하면서, 그 의리의 해석과정에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함: 노론을 비롯한 신료들의 당론을 통제하려는 의도 지님.
  - 1749년(영조 25) 대보단 중건함. 이후 영조는 명의 마지막 황제 毅宗도 같이 제사지낼 것을 제의함. 병자호란당시 의종이 조선에 원병 파견을 명령한 사실을 확인함.
    - 나아가 영조는 神宗, 毅宗뿐만 아니라 명의 초대 황제 洪武帝까지 대보단에 합사할 것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존호를 받음

- 그러나 영조는 명 세황제 사당에 명 장수들도 배향하자는 신료들의 건의를 임금과 신하를 같이 배향하는 것은 禮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함. 三皇 향사를 통해 신료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영조대 조선에서 국왕 주도의 ‘崇明論’이자 ‘조선 중화주의’의 표방이 가능했던 배경: 당시 청이 서북에서 몽골의 준가르(Junghar)部와의 전쟁 등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쓰지 못함.

□ 정조:

- 정조대에도 재조지은에 대한 숭앙이 강조됨.
  - 즉위직후인 1776년 이명희의 송시열 비판 상소에 대해, 재조지은 숭앙과 관련하여 송시열의 의리를 인정함.
  - ‘재조지은’은 앞의 세임금이 주도한 숭명의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명분적 기반이 됨
  - 이순신의 후손을 황단 망배례에 참여시켜, 기존의 임경업, 송시열의 후손과 함께 대우함.
  - 이순신, 임경업, 송시열, 이여송 등 임란이후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현창 사업 실시: 대명의리론의 정리 및 신료들에게 충절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왕권을 제고시키기 위한 포석임.

V. 맺음말

- 임란이후 조선의 국왕과 신료들은 인조반정, 병자호란, 명청교체 등 17세기 중반의 격동기와 속종, 영조, 정조대를 거치면서 ‘재조지은’이라는 ‘기억’을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함.
  - 재조지은은 명청 교체기와 조선 후기에 걸쳐 ‘정권교체의 논리’ 또는 ‘왕권 강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됨.
- 영조때부터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재조지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청 중심의 새로운 중화질서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줌
  - 명이 망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청의 대조선 압박이 완화되어 조선의 반청의식도 약화됨.
- 청의 중원 지배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까지 나타남: 예) 이익(1681-1763)은 임진년 재조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허명일뿐 實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님.
- 임진왜란 당시 명의 참전과 원조를 ‘재조지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 안석경(1718-1774):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참전이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 자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실시된 것이므로, 그 은혜를 갚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참전과 활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조선에 커다란 민폐를 끼침.
  - 화이론을 넘어서 명과 청을 대등한 반열에 놓고 비교함.
  - 청이 조선을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원한도 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개탄함.

\*\*

2. 허태용, “ 17· 18세기 북벌론의 추이와 북학론의 대두,”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 제69집, 2010, pp.373-418.